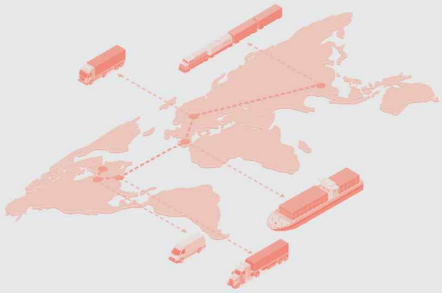
Global Market Report 22-042

시진핑 집권3기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시진핑 집권3기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목 차

제1장 시진핑 집권 1·2기(2013~2022) 경제 평가 1

1. 집권 1·2기 경제정책 1
2. 중국 경제구조 변화 7
3. 대외 통상환경 변화 11

제2장 시진핑 집권 시기 한중교역의 변화 14

1. 한중 교역 현황 14
2. 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 19

제3장 시진핑 집권3기(2023~2027) 경제정책 방향 22

1. 新 지도부 구성과 특징 22
2. 주요 경제정책 25

제4장 시사점 및 대응전략 31

요 약

□ 시진핑 집권 1·2기, 중국경제가 뉴노멀(新常態)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동력 전환과 전면적·질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

○ 시진핑 당 총서기 선출(2012년 11월) 당시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이 변화하는 이른바 뉴노멀(新常態) 시대에 진입

○ 고속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 녹색성장, 지역·도농 격차 해소, 생산요소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전면적 성장'이 과제로 부상

□ 지난 10년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 전면적·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수중심의 경제구도를 구축하기 시작

○ 노동력·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총수요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

○ 녹색성장, 지역·도농 협동발전, 공동부유 국정 기조 전면화

○ 고수준 개방과 경제우군 확보에 무게를 둔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 중심의 통상질서를 구축하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국내 新수요 발굴을 통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쌍순환" 전략으로 GVC 변화, 국내외 경기하방 압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

□ 지난 10년간 중국은 G2로 부상하고 국내경제개혁, GVC에서의 상향이동 등 방면에서 큰 성과를 이뤘지만 지역 격차 확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과제 산적

○ 중국의 GDP 규모 배증, 경제성장의 축은 서비스업·소비로 전환

요 약

○ 미국 주도의 對中 압박은 전면화·진영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하고 GVC 재편 가속화

□ **GVC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역내가치사슬 형성과정에서 한중 공급망 구조는 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 중국은 중간재 위주의 對韓 수입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입품목 집중도 심화

○ 중국의 '세계 제조업 전진기지'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아세안과 저부가가치, 韓·日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역내가치사슬을 구축

○ 중국의 기술 자립으로 글로벌시장에서 韓中 수출경쟁 심화 추세

□ **'원톱·원팀'체계를 구축하면서 집권3기에는 '시코노믹스' 전면 추진 및 한층 강화 예상**

○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모든 견제세력을 퇴출시키고 '원톱·원팀' 체계 구축

○ 내년 3월 양회에서 시자쥔(시진핑 측근 그룹)의 경제라인 전면 포진 및 경제 리더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전망

□ **집권3기에는 '수요'와 '공급'개혁을 동시 추진하며 질적 성장에 전력**

○ 효율적·지속적 경제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 맞춰 '전면적·질적' 성장 지속 추진 전망

○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 중심의 역내 산업망과 新통상질서 구축에 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

○ 기술자립과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더욱 집중하며 내수위주의 선순환 경제구도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

□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구축에 대비해 경쟁우위 유지, 공급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Ⅰ. 시진핑 집권 1·2기(2013~2022) 경제 평가

1. 집권 1·2기 경제정책

□ 중국경제 뉴노멀(新常態) 시대, 성장동력 전환·질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

○ 시진핑 당 총서기 선출(2012년 11월) 당시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이 변화하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 시대**에 진입

* 중국은 중국공산당 최고지도자(=당 총서기)가 이듬해 3월 국가원수(=국가주석)으로 선출됨. 따라서 중국의 '시진핑 시대'는 시진핑이 당권을 장악한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본격 개막

-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지속됐던 연평균 9.5% 이상의 **高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중고속성장(6~7%) 시대에 진입**하면서 **투자·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
- 기술혁신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민영기업의 역할 확대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동력이 변화**

<중국 실질 GDP·성장률 추이>

자료: 國家統計局

○ 고속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 녹색성장, 지역·도농 격차 해소, 생산요소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전면적 성장'이 과제로 부상**

-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발전(=GDP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환경오염, 빈부격차 심화 등을 감수한 **'발전 제일주의'의 성장모델**을 택함
- **후진타오 시대부터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조화로운 발전(和諧發展)'을 골자로 한 '과학 발전관'**을 중국공산당 이론으로 확정하고 환경보호, 빈부격차 해소를 주목하기 시작

- 시진핑 시대 들어 중국은 **'전면적 발전'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녹색성장, 권역 협동발전, 공동부유 등을 정책을 전면적·본격적**으로 추진

○ 2014년 시진핑 지도부는 '뉴노멀' 시대를 공식화하고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와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동시 추진

<시진핑 집권 1·2기 주요 경제정책>

과제	정책방향	세부 내용
질적 성장 성장동력 전환	공급측 개혁	- 시장요소 개혁을 통해 생산요소 효율성 향상 - 철강, 석탄 등 전통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산업고도화 및 혁신주도형 성장	- 첨단/핵심 기술에 대한 집중 육성 및 제조업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기술혁신력 향상
	디지털 전환	- 전통산업 디지털화 추진 및 플랫폼 등 신산업 발전 촉진 - 국가급 빅데이터 센터 설비 구축, ICT 클러스터 건설 등 新SOC와 연계 시너지 창출
	금융개혁	- 실물경제 뒷받침을 위한 금융개혁 심화 - 금융체제 정비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
	新소비진작	- 개성화·다원화 소비추세에 맞춰 신소비 채널 구축 - 식품안전 강화 및 시장 정비 가속화
	국유기업 개혁	- 국유자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유자산투자 기업 설립 - 국유기업의 경영 능력 향상 및 정부의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 최소화 - 상업성 기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혼합소유제' 도입
전면적 성장	녹색성장	- 환경보호감찰제도 구축 및 환경감찰 상시화 -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신흥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육성지원 강화 - '2030 탄소피크, 206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에너지소비구조 개혁
	권역협동발전	- 징진지, 슝안신구, 웨강아오 대만구 등 지역일체화 전략 추진 - 도시군 전략을 통해 도시화 효과 제고
	공동부유	- 첫 번째 100년 목표인 2021년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 분배, 소비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주민소득 제고 및 소득구조 개혁
국제통상질서 변화 대응	양자·다자간 FTA 체결	- 한중 FTA, RCEP 등 양자·다자간 FTA 체결 가속화 - 미국이 중국 고립을 위해 추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일대일로	- 일대일로 연선국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 가속화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

○ **공급측 개혁**은 시진핑 주석이 2015년 11월 중앙재경영도소조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래 **현재까지 강력히 추진돼 온 '시코노믹스'의 핵심 정책**

- 노동력, 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총수요 위주의 양적 발전에서 벗어나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함을 의미
- 구조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 공급의 질을 제고하는데 주력
- 과잉 생산·재고 해소, 부동산 버블 억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기업 비용 절감, 취약 부문 개선 등이 주요 과제

○ 생산요소 효율성 제고 및 경제구조 질적 전환을 위해 '중국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 산업고도화**에 전력

- 시진핑 **집권 1기**(2012~2017)에는 **4차산업혁명을 대비**해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 4차산업기술과 전통 제조업의 접목에 무게**를 두고 '인터넷 플러스', '중국제조 2025' 등 전략을 제정, 시행
- **집권 2기**(2017~2022) 들어 미중 디커플링 심화 속 첨단기술을 둘러싼 주요국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심 기술력 강화, 新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전환**에 박차

□ '파이 키우기'편중에서 '파이 나누기'도 중시하는 전면적·질적 성장으로 변화

○ (경제발전과 환경)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환경오염 야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태환경 보호 의식 강화 및 환경규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시진핑 정부는 **친환경 산업 육성과 환경규제 등 투트랙화 정책으로 환경보호에 전면적으로 나섬**

-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부터 최악의 스모그 사태와 마주하며* 환경법체계 구축, 환경감찰제도 가동 및 환경단속 상시화, 친환경산업 육성 등 친환경화 전환을 전면 추진

* 2016년 중국 338개 지급(地級) 도시 중 254개 도시가 환경공기품질 기준을 초과(=불합격)하였고, 같은 해 세계 환경평가지수 평가에서 중국은 총 180개 국가 중 106위 기록

- 집권2기에는 '2030년 탄소피크, 2060년 탄소중립' 시간표를 정하고 탄소중립 전환 본격화

※ 중국의 환경보호 감찰제도

- 환경보호부가 직접 각 지역에 감찰조를 파견해 환경문제를 점검하는 제도
- 지방정부의 눈감아주기식 관행과, 지방 민영기업의 '꽌시' 로비로 인해, 환경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중앙 감찰 조직을 통한 검사를 통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
- 2015년 7월 '환경보호감찰방안' 문건 통과에 따라 환경보호감찰기제 마련. 환경감찰 목표를 확정하고, 제도적 근거와 틀 마련
- 오염물질 배출 규제기준과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강제력과 집행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제 도입

○ (지역·도농 협동발전) 習지도부는 **권역협동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도시군 전략을 통해 도시화 효과를 제고하고 지역·도농 격차를 해소**해 왔음

- 농촌인구의 도시이주 속도 둔화 추세 속 **새로운 도시군을 빠르게 조성하는데 초점**
- 지역 균형 발전 통한 신성장 거점 및 동력 모색에 목적을 두고 호구제도 개혁 등을 통해 농민공의 도시인구로의 편입 추진에 가속도를 높여 왔음

* 중국 도시화율: 2001년 37.7% → 2012년 53.1% → 2017년 60.2% → 2021년 64.7%

< 중국 도시군 >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공동부유) **2021년 8월** 제10차 중앙재경위 회의에서 시 주석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근본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 강조하며 **공동부유 국정 기조 전면화**

- 개혁개방 이후 30여년간 고속성장 속에서 중국의 사회 빈부격차 지속적으로 심화

* 2019년 중국 도시가구 자산 평균치는 317.9만 위안, 중위수(중앙값)는 163만 위안으로 평균치와 중위수 격차는 155만 위안

- 2021년 샤오캉사회(小康社會: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림) 전면 달성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불평등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공동부유'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
- 소득분배제도 개혁, 민생 개선, 사회보장체계 구축 및 완비 등은 소득 및 소비 수준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임
- 실제로 시진핑 출범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부패 척결, 시장 관리감독 강화, 반독점 상시 단속 등은 '공동부유'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풀이

□ 대외개방 확대·경제우군 확보를 통해 중국 중심의 통상질서 구축

○ 지난 10년간 중국은 **양자·다자간 무역협정(FTA)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밸류체인(GVC)에서의 상향이동을 가속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

- 중국의 기체결 FTA(홍콩, 대만 등 지역 포함) 19건 중 9건은 시진핑 집권시기 체결한 것으로 한중FTA, 중국과 유럽 국가 간 첫 FTA인 중-아일슬란드 FTA,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간 첫 FTA 중-모리셔스 FTA,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포함

○ 시진핑 주석은 집권1기 **중국의 대외 수요 확대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전략 제정 및 실시**

- 대내적으로는 신규 수요 창출 및 철강·시멘트 등 과잉생산 분야의 판로 개척,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확보, 미국주도 경제질서 견제,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이 목적
-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연내 발족을 통한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 및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강력한 플랫폼 구축

* 한국의 AIIB 지분율 3.81%, 투표권 3.50%로 각각 5위 수준

<일대일로 해외 주요 루트>

- 일대(一帶) : 육상 실크로드 ①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노선
  ②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③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 노선
- 일로(一路) :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① 중국 연해항구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노선
  ② 중국 연해항구 → 남중국해 → 남태평양 노선

자료: xinhuanet.com, Barclays Research

□ 내수위주의 쌍순환(雙循環, 이중순환): 30여년 만에 중국 성장전략 대전환

○ 2020년엔 **'내수 위주의 쌍순환' 전략을 향후 중국 국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확정**

- "국제대순환(해외시장 진출과 중국 경제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국내대순환(내수중심의 성장과 개방 확대)"전략으로 2035년까지 중도 중진국(=중등발달국가) 도약 방침

내수 위주의 쌍순환: 내수 확대, 자립 그리고 개방

☞ 중국의 쌍순환은 국내외가 상호 촉진하는, 더욱 개방적인 구도이다.

中国提出构建以国内大循环为主体、国内国际双循环相互促进的新发展格局。
这决不是封闭的国内循环，而是更加开放的国内国际双循环。

- 시진핑 주석, 제3회 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 '20.5월 시진핑 주석 '국내대순환을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이 상호 촉진' 전략 최초 제시
그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경제운영 방향이자 중장기적 중국 정책 노선으로 자리매김

* (배경) 역글로벌화(De-globalization) 추세, 글로벌 공급 체인(Global value chain) 재편, 미중갈등의 전방위적 확산으로 인해,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성장방식 효력 상실

○ 쌍순환 전략의 **핵심은 '국내에서 新수요 발굴'을 통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고 GVC 변화, 국내외 경기하방 압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

- 시진핑 지도부는 출범 초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시장요소 개혁을 심화해 생산요소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공급측 개혁을 추진해 왔음
- 집권 2기에는 미중 디커플링 심화 및 역세계화 추세,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 등 외부환경 악화로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국내대순환 구도를 형성하는 데 주력
-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유연성, 공급의 질을 제고하는데 주력하는 공급측개혁에서 **수요·공급 개혁 동시 추진을 통해 내수중심의 선순환 경제구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선회**

<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구도 >

자료: CITIC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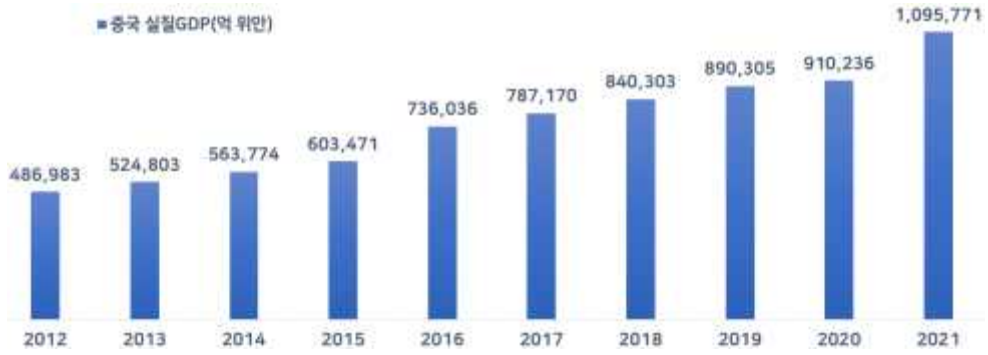
2. 중국 경제구조 변화

□ GDP 규모 2배로 증가, 경제성장의 축은 서비스업·소비로 전환

○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규모는 배증**했으며 **2021년엔 110조 위안에 육박**

-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2년의 48조 6,983억 위안에서 2021년 109조 5,771억 위안으로 2배로 증가

<중국 경제규모>



자료: 國家統計局

○ **3차산업과 소비가 중국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 지난 10년간 2차산업의 경제적 비중이 50%에서 40% 미만으로 위축된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은 55%~65% 수준으로 확대**되는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됨
-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0년 새 10%p 증가**하며 **'삼두마차' 중 최대 동력**으로 부상
- 수출의 기여도는 2%대에서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배 증가했으며 코로나 기간엔 중국 경기하방을 방어하는 핵심 지표로 크게 기여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자료: 國家統計局

○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디지털경제의 GDP 내 비중 급상승**

- 2021년 중국 디지털경제 규모는 45조 5천억 위안(+16.2%)으로 **GDP내 비중 39.8%**에 도달
- 2012년(11조 위안)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5.9%에 달함
- GDP내 비중도 10년새 18.2%p 확대 (2012년 비중 21.6%)

□ 하이테크 수출 꾸준히 증가, 중국 GVC에서 상향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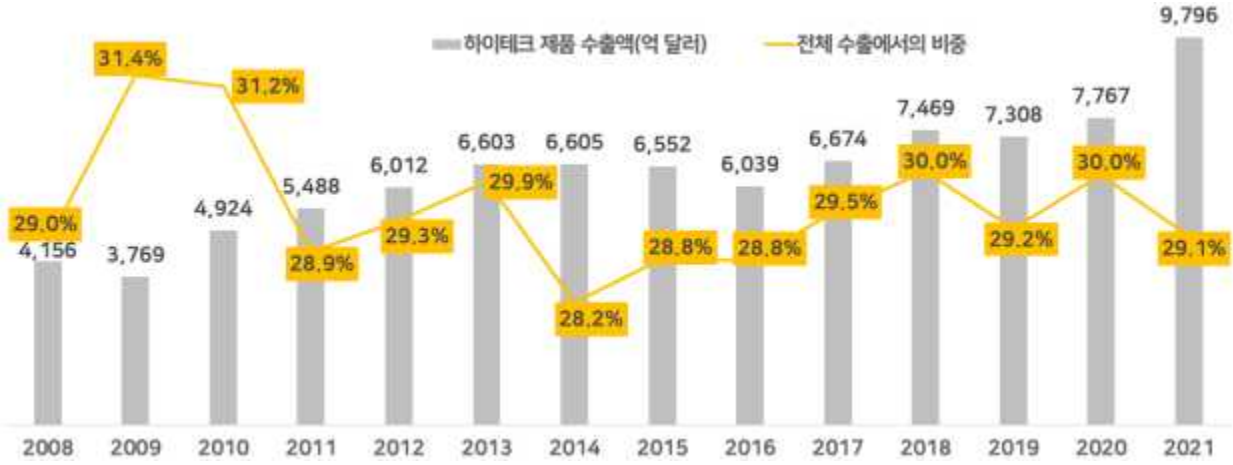
○ 중국 수출금액 2012년 2조 487억 달러에서 2021년 3조 3,630억 달러로 1.6배 증가

○ 중국 산업고도화에 따라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

- **2021년은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26.1% 증가하며 1조 달러에 육박**
- 하이테크 제품이 중국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은 29% 안팎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공업체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출구조를 구축했음을 의미

* 2021년 유형별 수출비중: 의류/방직품/완구/신발/가구/가방/플라스틱 제품 등 노동집약형 품목 18.2%, 철강재/선박/컨테이너/자동차부품 등 자본집약형 품목 6%, 집적회로 등 기술집약형 품목 18%

<중국 하이테크 제품 수출액 및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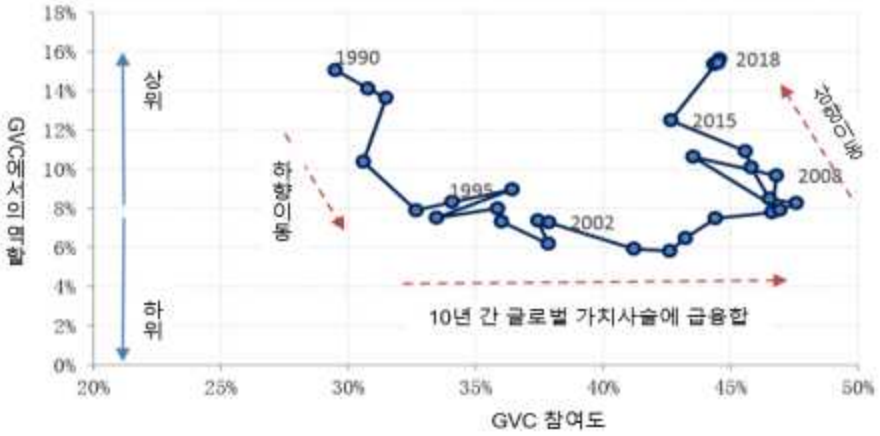


자료: 海關總署

○ 201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 내 중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향 이동**

- 중국은 1990년대부터 저임금, 개혁개방 정책 인센티브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빠르게 융합
- 핵심 기술부품의 높은 대외의존도, 주력업종 경쟁력 저하 등 문제가 존재하지만 지난 10년간 '노동집약형 산업' 위주에서 '혁신주도형 산업'으로 전환 추세
- 특히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과 같은 산업고도화 전략 추진에 가속도가 붙으며 글로벌 가치사슬 내 중국의 상향 이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 중국 GVC 상 지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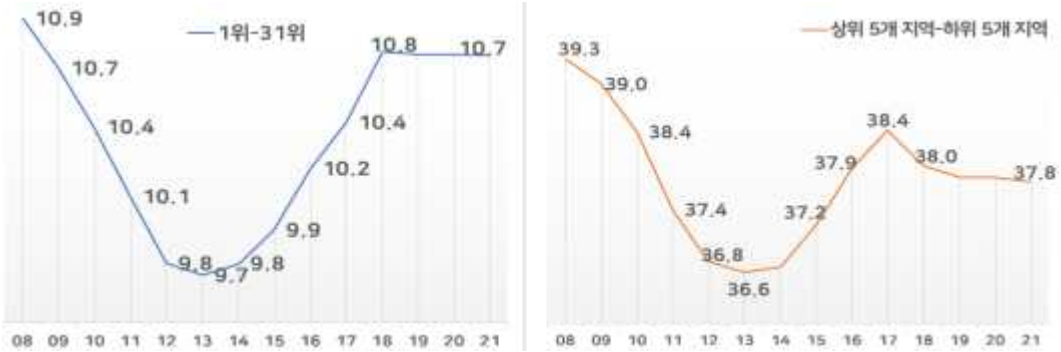
자료: UNCTAD-Eora GVC Database, 華創证券

□ 산업고도화에 따라 지역간 격차는 심화됐으나 신형 도시화는 급진전

○ 시진핑 지도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경제격차 심화**

- 중국 GDP 1위 성(省)과 31위 간 전국 GDP에서의 비중 격차는 시진핑 집권 첫해인 2013년 9.7%p로 저점을 찍은 후 꾸준히 상승세
- GDP 규모 상위 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간 격차는 2013년 36.6%p로 최저치 기록한 후 2017년 38.4%p까지 확대됐다가 최근 소폭 완화세
- **뉴노멀 시대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발전격차가 확대된 결과**로 풀이

<지역간 GDP 비중 격차(%p)>



자료: 國家統計局

○ 도시군 전략 추진에 따라 **인구수 백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 중심으로 도시화에 가속도**

- 인구 수 백만명 이상 도시 수는 시진핑 집권 첫해인 **2013년에는 79개였으나 2020년 105개**로 증가
- **도시화율은 2012년 53.1%에서 2021년 64.7%로 10년새 11%p 이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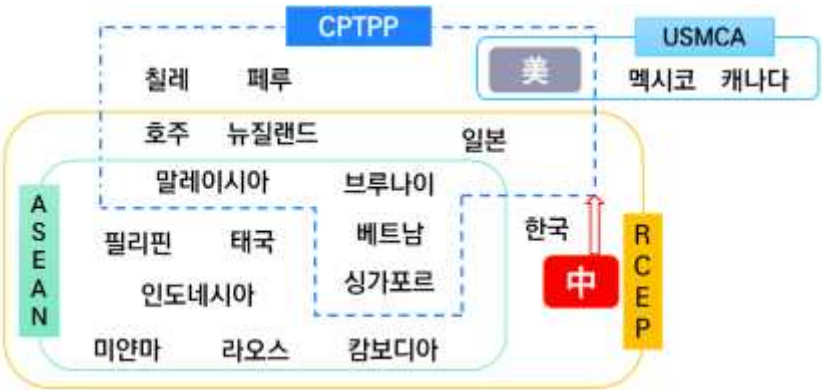
□ RCEP 등 메가FTA를 통해 새로운 세계통상질서 구축

○ 중국은 아세아-태평양 인근국과의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우군을 확보하고 아-태지역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 2021년 9월 고수준 FTA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 2022년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 국가별 RCEP 발효일자: 중국·브루나이·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태국·베트남·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0개국 2022년 1월 1일부, 한국 2월 1일부, 말레이시아 3월 18일부, 미얀마 5월 1일부, 인도네시아 2023년 1월 2일부, 필리핀은 발효시간 미정

< 주요국 다자간 무역협정 타결 상황 >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특히 RCEP의 발효로 향후 중국이 한국, 일본 등 지역으로부터 중요 부품·소재를 수입·가공해 동남아 등 지역으로 일반 부품소재를, 선진국으로는 고부가가치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등 **중국 중심의 산업망 강화 움직임**

<RCEP 발효에 따른 중국 중심의 RVC 재편 가속화 효과>

자료: CITIC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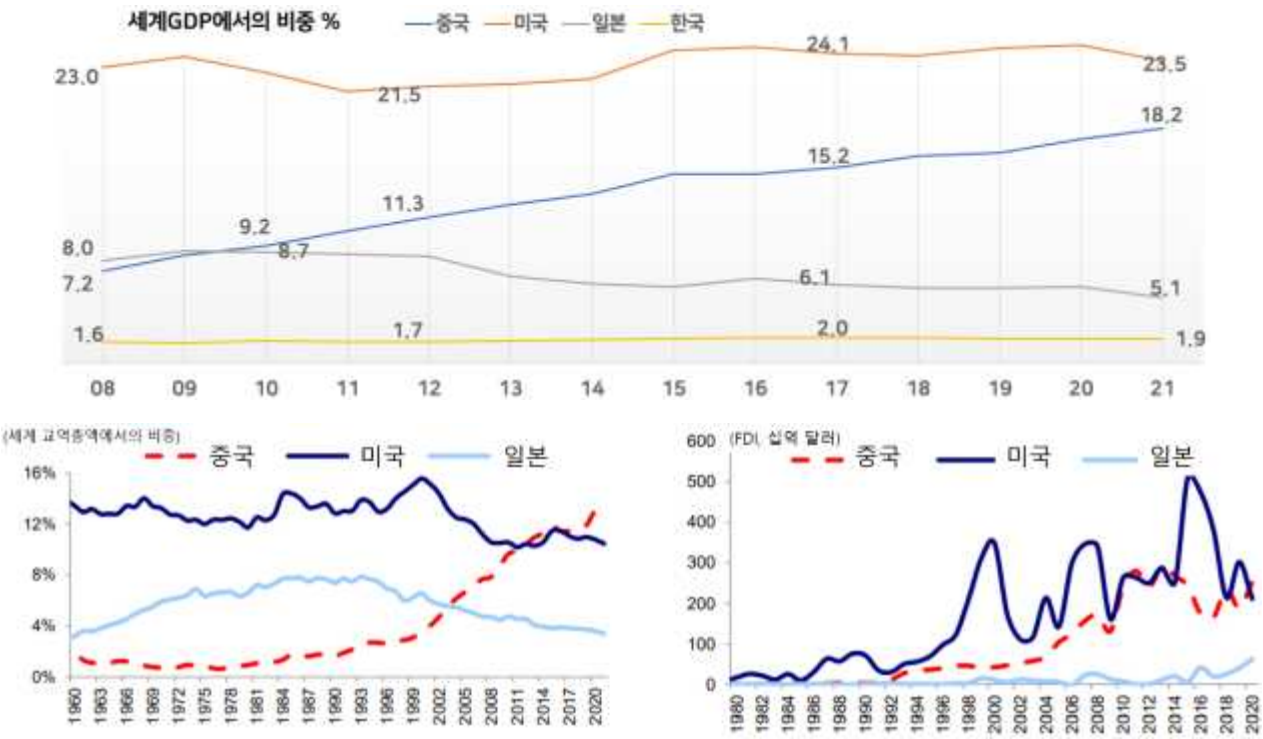
3. 대외 통상환경 변화

□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거듭하여 G2 위치로 성장

○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G2로 부상한 이래 G1인 미국과의 격차도 꾸준히 축소**

- 2012년 세계 GDP에서의 중국 비중은 11.3%, 미국과 10.2%p 격차를 두고 있었으나 **2021년 중국의 비중이 18.2%로 확대되면서 양자간 격차는 5.3%p로 좁혀짐**
- 세계 무역에서의 중국 비중은 2012년의 10.4%에서 2021년 13.5%로 확대됐으며 **2017년부터 5년 연속 세계 최대 무역국의 위치를 유지**
- **2020년 중국은 사상 최초로 미국을 제치고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국으로 부상** 했으며 2021년엔 21.2% 증가한 1,810억 달러를 기록

<중국이 세계경제에서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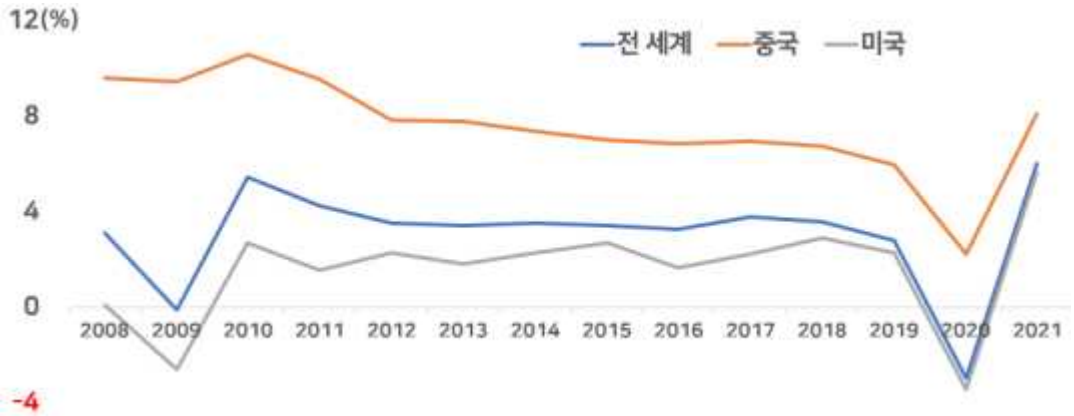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HAITONG SECURITIES

○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의 세계경제 비중이 지속 확대되면서 **중국은 세계 경기회복의 엔진 역할을 담당**

- 2010년대 들어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으나 글로벌 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상회
- 2020년엔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상황에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실현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IMF

□ 美 주도의 對中 압박 강화

○ 중국 경제, 국제적 위상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미국은 견고해지는 동맹체제(안보-쿼드, 공급망-IPEF 등)를 기반으로 대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코로나 사태로 기술 패권,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은 전면화·진영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 전략(Pivot to China)이 규범화(Rule setting)와 진영화(동맹강화)를 두 축으로 하는 로드맵에 따라 미중 갈등 강도는 상승

< 미국의 對中 기술적 디커플링 조치 >

시기	조치	관련 분야
2018.3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
2018.4월	ZTE 제재	통신
2019.5월	화웨이 제재	반도체, 통신
2020.8월	틱톡, 위챗, 바이트댄스 제재	인터넷
2020.12월	외국기업책임법(HFCAA) 통과	-
2021.3월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 출범	5G, AI, 반도체
2021.6월	미-EU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C) 출범	-
2021.6월	'공급망 100일 검토보고서' 발표	반도체, 신에너지, 의약바이오
2022.2월	인도·태평양 전략 제정	-
2022.7월	미 국회,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	반도체
2022.9월	SMIC(中芯國際) 제재	반도체
2022.10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반도체

자료: GF SECURITIES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 코로나 팬데믹 및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항만 적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이로 인한 국제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한 불확실 요인으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지속 심화**

- 공급망 혼란 수준을 보여주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GSCPI)의 경우 2021년말 기준 4.5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수가 개발된 1997년 이후 최대치
- 2020년 들어 소폭 가라앉았으나 코로나 이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2018년부터 탈세계화, 디커플링 빠르게 진행>

자료: 美 뉴욕연방준비은행

○ 원자재 가격 급등세, 공급차질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 코로나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수급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에너지, 곡물, 공업용 금속 등 상품 가격 급등세 지속
- 원자재 공급원들이 잇따라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하며 글로벌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 증폭

* 중국: 2021년 10월 15일 요소 수출통관검역 강화
인도네시아: 2021년 말 발전용 석탄 수출 금지(1.12일부 점진적 재개), 4월 말부터 25일간 팜유 수출 중단,
인도: 철광석 수출세 인상(최대 50%까지), 밀 수출 금지 선언
러시아: 반도체소자 및 전자 집적회로(IC) 등 총 500가지 품목 수출금지 및 제한

○ **역세계화, 급속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각국의 산업망·공급망 배치가 '효율 최우선'에서 '안전 최우선'으로 전환** 추세

Ⅱ. 시진핑 집권 시기 한중 교역의 변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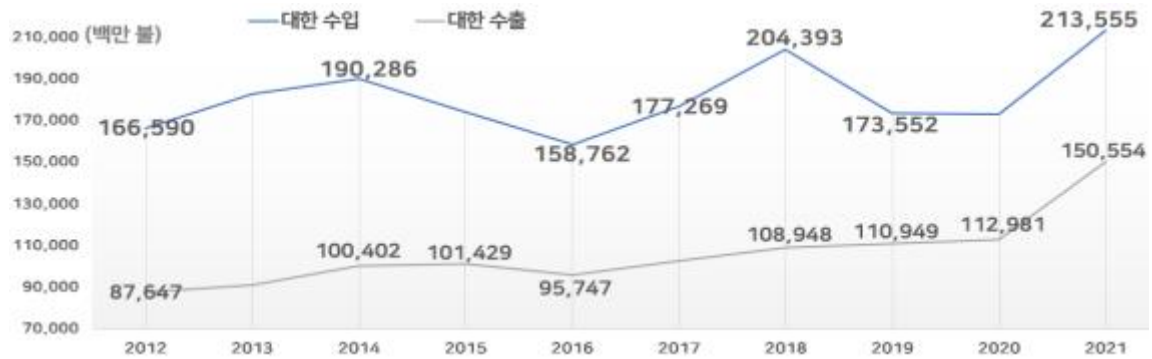
1. 한중 교역 현황

□ 지난 10년간(2012~2021년) 한중 교역은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세

○ 한중 간 교역규모는 **2012년 2,542억 달러에서 2021년 3,641억 달러로 확대**

- 2018년 3,133억 달러 고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2021년 중국경기 회복세에 따라 3,641억 달러로 최고치 경신**
- 중국의 **對韓 수입은 2012년 1,666억 달러에서 2021년 2,136억 달러**, 대한 수출은 2012년 876억 달러에서 2021년 1,506억 달러로 증가
- **중국 교역총액에서 한국의 비중은 2012년 6.6%에서 2021년 6.0%로 소폭 감소**

<중국의 對韓 수출입 동향>



자료: 海關總署

□ 한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6년 연속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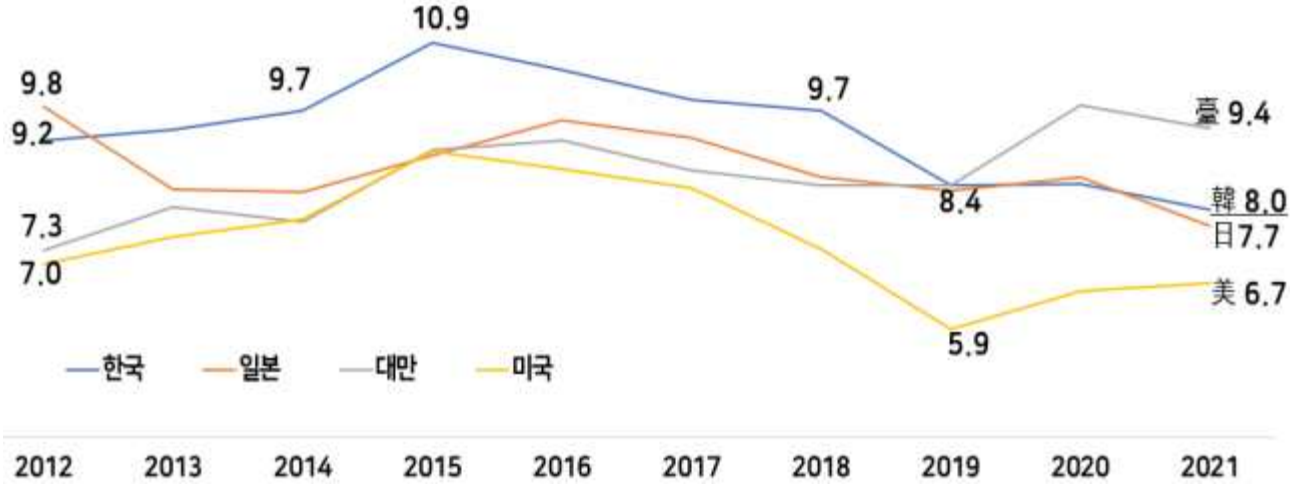
○ 중국의 대한국 수입은 **2018년 2,044억 달러에서 정점을 찍고 2019년에 전년 대비 15.1% 급감했다가 2021년 중국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2,136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

○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은 2012년의 9.2%에서 2021년 8%로 소폭 감소**

- **2015년 10.9% 고점 대비 2.9%p 하락**
- 2013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1위 차지한 이래 2019년까지 7년간 중국 최대 수입대상국 지위를 유지했으나 2020년 3위, 2021년 2위에 랭킹

1) 연도별 비교를 위하여 분석 대상 기간을 10년(2012년~2021년)으로 설정하고 2022년은 분석대상에서 제외

<국가별 중국 수입시장 순위 및 점유율(%)>



자료: 海關總署

□ 중간재 위주의 대한국 수입구조 유지하면서 수입품목 집중도 심화 추세

○ 중국의 대한국 수입에서 생산과정에 필요한 **중간재의 비중이 70% 이상을 유지**해 왔으며 **2021년에는 80.6%로 더욱 높아짐**

- **자본재의 비중이 2012년 23.5%에서 2021년 15.1%로 눈에 띄게 감소**
- **소비재의 비중은 큰 변동 없이 2~3% 수준을 유지**

<중국 대한국 수입의 가공 단계별 구성(대분류, %)>

자료: Global Trade Atlas 통계를 수출입 제품의 가공단계별 분류 기준표인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기준에 따라 KOTRA 계산

○ 중국의 중저위 중간재 자급화, 가공무역 억제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산 점유율 하락**

- 2021년 중국 중간재 수입은 2017년 대비 50.3% 증가했으나 대한국 중간재 수입은 21.7%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동 기간 한국의 중국 중간재 수입시장 내 점유율도 2.9%p 하락함

○ 2021년 중국의 주요 대한 수입품목은 기계전자품목,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화장품 등

-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지난 10년간 한국산 자동차 부품, 정제유, 디스플레이 등 품목의 수입 둔화**
-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과 소비수요 다양화, 업그레이드에 따라** 뷰티제품 수입이 급증하면서 **화장품이 중국의 대한 수입 상위 10대 품목에 진입**

<중국의 대한국 수입 10대 품목(HS 4단위) 및 비중>

순위	2012		2017		2021	
1	집적회로	23.7%	집적회로	37%	집적회로	41.6%
2	LCD 패널	12.2%	LCD 패널	5.7%	통신기기 및 부품	3.0%
3	정제유	5.5%	환식탄화수소	4.7%	LCD 패널	3.0%
4	통신기기 및 부품	5.0%	통신기기 및 부품	3.4%	환식탄화수소	2.8%
5	환식탄화수소	3.3%	정제유	2.6%	반도체 제조기기	2.7%
6	반도체 디바이스	2.1%	반도체 제조기기	2.1%	무선기기 부품	2.5%
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	2.0%	TV 부품	1.8%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2.2%
8	인쇄회로	1.8%	자동차 부품	1.6%	컴퓨터 및 유사한 기계용 부품	2.2%
9	비환식탄화수소	1.8%	다이오드	1.4%	벤젠 등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	1.8%
10	자동차 부품	1.7%	컴퓨터 및 유사한 기계용 부품	1.4%	화장품	1.8%

주: HS 코드 4단위 기준으로 비중은 해당 품목의 대한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Global Trade Atlas

○ 한편, 중국의 **대한 수입품목 집중도는 지속 확대 추세**

- **HS 4단위 기준** 대한 수입 **10대 품목의 수입비중 합계는 2012년의 59.1%에서 2017년 61.7%, 2021년 63.6%로 10년새 4.5%p 증가**
- 1위 수입품목인 **집적회로의 수입비중은 지난 10년간 17.9%p 확대해 2021년 40% 상회**

□ 시진핑 집권 2기(2017~2021년) 들어 對中 주력 품목의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세 심화

○ 중국의 **대한 수입적자는 꾸준히 감소하여 10년새 150억 달러 이상 축소**

- 시진핑 집권 1기 대한 수입적자는 46억 달러 감소하였고, **집권2기의 감소폭은 100억 달러 상회**

* 中 對韓 무역적자 추이: 2012년 789억 달러 → 2017년 743억 달러 → 2021년 630억 달러

○ 중국의 대한국 수입 10대 품목 중 상위 5개 품목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지난 5년간(2017~2021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전체 대한국 수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1위 품목인 집적회로의 5년간 중국 수입 시장점유율 감소폭은 5%p, 주요 석유화학제품인 환식탄화수소의 감소폭은 7.3%p에 달함**
- **주력 수출 품목의 부진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점유율 1.9%p 감소**

<對韓 수입 10대 품목의 수입시장점유율 변화>

순위	HS	품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1-2017 점유율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9.9%	9.7%	8.4%	8.4%	8.0%	△1.9%p
1	8542	집적회로	25.3%	26.3%	20.7%	19.5%	20.3%	△5.0%p
2	8517	통신기기 및 부품	12.6%	8.5%	9.3%	9.5%	11.5%	△1.1%p
3	9013	LCD 패널	27.1%	29.9%	29.4%	26.1%	23.3%	△3.8%p
4	2902	환식탄화수소	41.9%	34.9%	33.7%	31.4%	34.6%	△7.3%p
5	8486	반도체 제조기기	19.0%	21.3%	20.2%	18.9%	14.1%	△4.8%p
6	8529	무선기기 부품	26.2%	16.5%	19.3%	20.4%	29.1%	3.0%p
7	8471	자동 데이터 처리기계	8.0%	9.2%	7.7%	9.2%	11.3%	3.3%p
8	8473	컴퓨터 및 유사한 기계용 부품	16.9%	19.5%	21.6%	22.0%	17.9%	1.0%p
9	2707	벤젠 등 방향족 탄화수소 혼합물	21.0%	40.2%	49.5%	45.9%	42.7%	21.7%p
10	3304	화장품	26.4%	26.6%	23.0%	19.0%	19.2%	△7.2%p

자료: Global Trade Atlas

○ 또한 **중국 산업고도화에 따른 자급률 향상은 일부 품목의 수입 둔화로 이어짐**

※ 중국 자급률 향상 품목 예시) 파라자일렌(Para-Xylene, PX)

- 파라자일렌(Para-Xylene, PX)는 원유에서 나온 중질 나프타를 정제해 만든 석유화학제품으로, 이를 원료로 사용해 PTA(고순도 테레프탈산: 의류와 페트병 등에 많이 쓰이는 폴리에스터의 원료) 제조
- 중국은 2012년 세계 최대 PX 소비국으로 부상했으며 2021년 중국의 PX 소비량은 3,500만 톤을 돌파
- 2018년 중국 PX 자급률은 40%를 하회했으나 2019년부터 헝리 석유화학(恒力石化), 저장 석유화학(浙江石化) 등 중국 민영기업들의 생산라인 신·증설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며 2021년 중국내 PX 생산능력이 2천만 톤을 돌파했으며 자급률은 60%를 넘어섬

<중국 PX 수급동향>

연도	중국내 생산능력 (만 톤)	중국내 생산량 (만 톤)	생산 가동률	중국내 생산기업 (개 사)	수입량 (만 톤)	수출량 (톤)	소비량 (만 톤)	자급률
2018	1,383	1,020	73.8%	22	1,591	130	2,611	39%
2019	2,053	1,411	68.7%	22	1,494	59	2,905	48.6%
2020	2,564	2,007	78.3%	22	1,386	46	3,393	59.1%
2021	3,169	2,164	68.3%	22	1,365	61	3,529	61.3%

자료: BAIINFO

○ 경제발전 수준 향상, 중국산 제품의 기술력 강화에 따른 **중국 소비시장의 '궈차오' 열풍이 한국산 소비재의 중국 소비재 수입시장·내수시장내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음**

* 궈차오(國潮)란 중국을 의미하는 궈(國)와 유행·트랜드를 의미하는 차오(潮)의 합성어로 자국산을 더 선호하는 소비경향을 의미

- 특히 가전, 화장품, 의류, 가공식품 등 우리나라의 對中 주력 소비재 분야에서 토종 업체가 매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K-소비재 수입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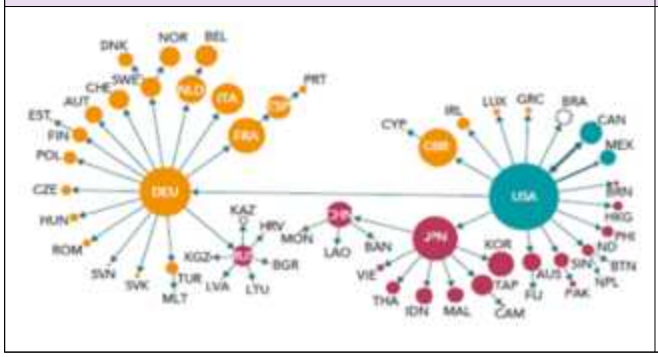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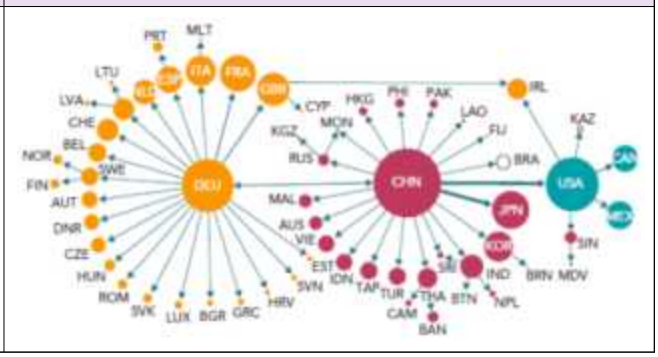
2. 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

□ GVC내 중국의 역할 확대 및 역내가치사슬 형성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 **중국은 2010년 세계 수출국 1위를 달성하며 GVC 전체적으로 역할 확대**

- **2017년 중국은 미국, 독일과 함께 GVC내 3대 공급 허브 중 하나로 부상**
- 2000년 초반 GVC는 독일(유럽), 일본(아시아), 미국(미주)이 지역별 허브 역할을 하며 제품 공급 주도, 2017년에 이르면 유럽은 큰 변화가 없지만 아시아는 중국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GVC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함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의 역할>

2000년	2017년
	

자료: WTO(2019).“Technological Innovation, Supply Chain Trade, And Workers In A Globalized World”

○ 중국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지속적으로 상향 이동하면서 **한중 공급망은 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 기존의 **중국은 노동력 우위를 기반으로** 한국 등 국가로부터 주요 소재·부품·장비 및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한 후 **가공·조립하는 ‘세계공장’의 역할을 담당**
- 그러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른 자급률·기술수준 향상, 노동비용의 점진적 증가와 미중 분쟁 본격화에 따른 기업들의 탈(脫)중국 등 요인으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제조업 전진기지’로서의 견고한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약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 지난 10여년 간 중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은 아세안과, 고부가가치 산업은 한·일과 협력하는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을 구축

- (고부가가치 산업: 전자제품·자동차) 중국이 한·일·대만으로부터 중요 부품·소재를 수입, 가공 → 동남아로 수출해 가공·조립 → 완성품을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구조

- (저부가가치 산업: 섬유·의류) 한·중·일 등 국가가 동남아에 일반 부품소재를 수출 → 동남아에서 가공·조립 → 완성품을 수출
- 최근 내수위주의 쌍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GVC에서의 상향 이동을 지속 추진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산업망 강화 움직임**

<중국 주요 산업망의 주요국/지역에 대한 의존도>

중국 산업망의 수입 의존도 (2019년)						
산업	아세안	자원 부국	EU	한·일·중·대만	중남미	미국
전자제품	19.6%	6.1%	6%	27.7%	0.7%	3.3%
자동차	5.2%	1.7%	39.3%	32.3%	2.8%	8.6%
섬유의류	36.2%	14.3%	12.7%	10.4%	8.5%	4.3%

중국 산업망의 수출 의존도 (2019년)						
산업	아세안	자원 부국	EU	한·일·중·대만	중남미	미국
전자제품	12.4%	7.3%	14.9%	11%	6%	11.5%
자동차	12.4%	20.5%	15.6%	10.4%	8.6%	18%
섬유의류	12.9%	17.4%	15%	13.1%	5%	18.7%

* 주: 산업망에는 최종상품의 수출입 금액 제외
자료: 海關總署, INDUSTRIAL SECURITIES

□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수출경쟁 심화

○ 중국의 기술 자립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중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
- 아시아 지역의 주요국(지역) 간 수출품목 구성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국가
- 한국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일본, 대만, 중국 순
- 이는 **글로벌시장에서 한중 제품 간 경합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

< 2021년 국가간 수출구조 비교분석(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

국가/지역	중국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
중국	-	0.725	0.685	0.714	0.696	0.628	0.622	0.547	0.717	0.669
한국	0.725	-	0.856	0.808	0.712	0.681	0.611	0.555	0.618	0.666
일본	0.685	0.856	-	0.794	0.668	0.667	0.546	0.521	0.546	0.621
대만	0.714	0.808	0.794	-	0.708	0.666	0.598	0.573	0.647	0.600
태국	0.696	0.712	0.668	0.708	-	0.762	0.724	0.657	0.758	0.663

말레이시아	0.628	0.681	0.667	0.666	0.762	-	0.702	0.636	0.686	0.618
인도네시아	0.622	0.611	0.546	0.598	0.724	0.702	-	0.629	0.723	0.656
필리핀	0.547	0.555	0.521	0.573	0.657	0.636	0.629	-	0.640	0.511
베트남	0.717	0.618	0.546	0.647	0.758	0.686	0.723	0.640	-	0.663
인도	0.669	0.666	0.621	0.600	0.663	0.618	0.656	0.511	0.663	-

주: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는 상관계수를 계산할 두 변수의 실제 값 대신 두 변수의 순위를 사용해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1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자료: Global Trade Atlas, JETRO

※ 중국 수출경쟁력 강화 품목 예시: 자동차

- 중국 메이저 로컬 메이커들의 해외진출 본격화에 따라 중국 자동차 수출량이 2025년 300만 대, 2030년에는 55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내연 기관차 기술 수준이 높고 친환경화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유럽, 대양주, 중남미 등 시장에서 중국기업들은 신에너지차 시장 공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2025년 대양주와 중남미에서 중국산 신에너지차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20%, 25%에 도달하고 2030년에 이르면 각각 30% 돌파 전망
- 동남아, 아프리카 등 내연 기관차 시장 포화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중국산 내연 기관차 수출도 한동안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는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확장해 2030년 신에너지차·내연 기관차 시장점유율이 각각 40%, 30%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

<중국산 자동차의 해외 판매상황 및 시장점유율 전망>

(단위: 만 대)

	2025							2030						
	판매량	전동화율	중국산의 시장점유율		중국산 판매량			판매량	전동화율	중국산의 시장점유율		중국산 판매량		
			신에너지차	내연 기관차	신에너지차	내연 기관차	합계			신에너지차	내연 기관차	신에너지차	내연 기관차	합계
아시아(중국 제외)	1,400	7%	13%	9%	14	119	132	1,480	29%	20%	9%	82	129	211
동아시아(중국 제외)	650	9%	4%	1%	2	6	8	650	30%	5%	1%	10	5	14
아세안, 서남아	750	6%	25%	16%	11	113	124	830	25%	35%	20%	73	125	197
유럽	2,000	24%	11%	1%	51	17	68	2,000	56%	15%	1%	163	20	183
서부 유럽	1,580	25%	10%	0%	40	0	40	1,580	60%	14%	0%	133	0	133
중부/동부 유럽	420	18%	15%	5%	11	17	29	420	40%	18%	8%	30	20	50
북미	2,050	20%	3%	1%	12	16	29	2,050	45%	4%	1%	37	11	48
중남미	400	5%	25%	10%	5	38	43	450	10%	30%	12%	14	49	62
대양주	110	10%	20%	8%	2	8	10	110	25%	30%	8%	8	7	15
아프리카	85	3%	35%	30%	1	25	26	100	8%	40%	30%	3	28	31
합계	6,045	17%	8%	4%	85	223	308	6,190	42%	12%	7%	307	243	550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Marklines, CITIC SECURITIES

Ⅲ. 시진핑 집권3기(2023~2027) 경제정책 방향

1. 新 지도부 구성과 특징

□ 20차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 3연임을 확정하고 '원톱·원팀' 체제 구축

○ 시진핑 총서기는 **20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3연임에 성공**

- 중국의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며 5년 임기 내에 총 7차의 전체회의를 개최함
- 약 1억 명에 달하는 중국공산당 당원 중 지역대표대회를 거쳐 선출된 2,296명의 대표가 참석해 376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과 171명의 후보위원을 선출
- 205명의 중앙위원 중앙정치국에 진출한 24명은 당 중앙부처· 4대 직할시 수장, 국무원 부총리, 군사위 부주석 등 요직을 맡게 됨
- 이들 중 7명은 중국 권력의 피라미드에 정점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

< 중국공산당 권력구조 >

중앙정치국 위원(상무위 제외, 17명)		
허리펑	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스타이펑	石泰峰	중앙통일전선공작부 부장
리수레이	李書磊	중앙선전부 부장
왕이	王毅	외교부 부장
천원칭	陳文清	중앙정법위 서기
장유샤	张又侠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	何衛東	
인리	尹力	베이징시 당서기
천지닝	陳吉寧	상하이시 당서기
천민얼	陳敏尔	톈진시 당서기
위안자쉰	袁家軍	충칭시 당서기
황쿤밍	黄坤明	광둥성 당서기
마싱루이	馬興瑞	신장 당서기
류궈중	劉國中	-
리간제	李干杰	산둥성 당서기
장궈칭	張國清	-
리훙중	李鴻忠	-

주: '–'로 표시한 정치국위원은 현 직책 미정, 내년 3월까지 당 중앙부서 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 큼.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2022년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시진핑 집권 3기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위원(24명)·상무위원(7명)** 선임

- (유임) 시진핑 당 총서기 3연임 확정, 19기 상무위원 중 자오러지(趙樂際) 前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와 왕후닝(王滬宁) 前 중앙서기처 서기 유임
- (신규) 리창(李强) 상하이시 당서기,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당서기, 딩쉐샹(丁薛祥) 중앙판공청 주임, 리시(李希) 광둥성 당서기가 신규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진출
- (퇴임) 19기 상무위원 중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정협 주석, 한정(韓正) 부총리 퇴진

○ 공청단 출신의 개혁파인 리커창과 왕양 등 공청단, 상하이방 등 견제세력을 퇴출시키고 **'원톱·원팀' 체제를 구축**했으며 **상무위 전원을 시자쥔(習家軍·시진핑 측근 그룹)으로 구성**

-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파격적으로 총리(서열 2위)로 내정
- 시진핑 집권 2기 부패척결을 주도해온 '반부패 차르' 자오러지는 중앙기율위 서기(서열 6위)에서 전인대 상무위원장(서열 3위)으로 격상
- 3대(장쩌민·후진타오·시진핑) 최고지도자의 정치 책사인 왕후닝은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 장악 (기존 서열 5위의 중앙서기처 제1서기에서 서열 4위로 승진)
- 시진핑의 두터운 신임으로 초고속 승진해온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가 서열 5위로, 왕후닝의 뒤를 이어 중앙서기처 제1서기로 선임
- 시진핑의 '비서실장'인 딩쉐샹 중앙판공청 주임은 국무원 부총리로 내정
- 리시 광둥성 당서기는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위 서기로 임명

< 現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정치국 상무委

* 現 정치국 상무위원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7인으로 구성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赵乐际)*** 전인대 상무위원장	**왕후닝(王沪宁)*** 정협 주석	**차이치 (蔡奇)** 당중앙서기처 서기	**딩쉐샹 (丁薛祥)*** 국무원 부총리	**리시(李希)** 중앙기율委 서기

주: *로 표시한 4명의 직위는 관례에 따라 예측한 것으로 2023년 양회에서 최종 확정됨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2023년 상반기 중국 경제사령탑 대거 교체 예고

○ 내년 3월 양회(兩會)에서 **국무원 시자쥔의 경제라인* 전면 포진 및 경제리더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전망**

* 2023.3월 국무원 총리, 부총리(4명), 재정부장, 인민은행 총재·부총재 전원 교체

- 류허(劉鶴) 부총리, 류쿤(劉昆) 재정부장, 이강(易綱) 인민은행 총재, 궈수칭(郭樹清) 인민은행 부총재 겸 은행보험감독위 주석이 중앙위원(205명)에서 탈락
- 공청단 계열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후춘화(胡春華) 국무원 부총리는 24명의 중앙정치국에서 탈락하면서 내년 퇴임 예상

<시진핑 집권3기 경제사령탑>

인물	예상 직무	주요 이력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	- 시자쥔 중의 저장인맥으로 시진핑 집권1·2기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상하이 당서기 역임 - 중국 개혁개방 이후 첫 부총리 경험이 없는 총리 - 2022년 봄 경제수도인 상하이시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및 도시봉쇄에 따른 공급·물류대란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 존재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 (금융·경제개혁 주도)	- 샤먼대 경제학 박사 - 일대일로 전략의 키맨이며 연해지역 자유무역구 건설 주도 -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총괄부처의 수장으로서 경제개혁과 '14.5계획' 제정을 주도

자료: 국내외 언론 보도 종합

○ **'시진핑 경제학'의 전면적 추진이 지속될 뿐 아니라 한층 강화**될 것을 예고

- 지난 10년간 시진핑 지도부는 국무원 총리가 중국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관례를 깨고 **시진핑 주석이 경제정책 운용을 주도해 온 상황**
- **국무원 총리와 경제체제 개혁을 주도하는 부총리 인선 모두 시진핑 집권 1·2기 발탁된 인물**로 그간 시진핑의 경제사상에 따라 경제정책을 제정, 실시하는데 전력

○ 왕이 現 외교부장이 중앙정치국에 진출해 **강경한 외교 노선을 이어갈** 전망

- 공격적인 외교를 뜻하는 '전랑(戰狼) 외교'를 주도해 온 왕이 외교부장이 양제츠 뒤를 이어 차기 외교 사령탑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데 무게

2. 주요 경제정책

□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질적 성장에 전력

○ 20차 당대회에서 '중국식 현대화'를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확정하고 **질적 성장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중국식 현대화는 거대한 인구 규모의 현대화, 전체 인민 공동부유의 현대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 현대화임

○ 구체적으로 ▲내수확대, ▲공급측 개혁, ▲생산요소 효율화, ▲공급망 안정, ▲녹색성장체계 구축 등 기존 정책조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질적 성장을 위한 구체적 조치>

구분	세부 내용
내수확대	농촌진흥, 주민소득수준 향상 및 분배제도 개선, 소비진작, 신SOC 확대
공급측 개혁	공급과잉 해소,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 서비스업 육성, 디레버리지
생산요소 효율화	기술혁신, 디지털 경제, 지재권 강화
공급망 안정	안정적 자립형 공급망·산업망 구축
지역통합 발전	인프라 투자 확대, 역내 산업간 상호보완성 강화
녹색 성장	에너지소비 구조 개혁,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효율적·지속적 경제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 맞춰'공동부유(共同富裕: 다같이 잘사는 사회)' 국정 기조 전면화

○ '공동부유' 사상을 전면에 내세우며 **'효율', '성장 편중'에서 '균형·전면 발전'과 '분배' 사이의 균형으로 선회**

- 지난 40년간 중국의 시장경제 개혁은 **'선부론(先富論)'에 따라 경제발전과 효율을 우선시하고 경제정책도 선도기업 육성에 무게**
-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나 빈부격차, 소득 불균등이 날로 심화되면서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시점에서 중국 지도부는 공동부유 기조하에 재빈곤화 방지, 반독점, 교육과 문화 영역에 대한 대대적 단속 추진

<공동부유 기조에 따라 시행한 정책>

구분	세부 내용
탈빈곤 지속 추진	- 공산당 100주년을 계기로 '탈빈곤 사업의 전면적인 승리'를 선언했지만 반복빈곤, 재빈곤화 방지
플랫폼 반독점	- 규제를 최소화 했던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전문 법제도 구축, 반독점 조사, 데이터 안전 강화 등 전면적·본격적으로 규제 강화
사교육 금지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초중학생들의 입시 사교육 전면 금지
명문 학군 아파트 대상 부동산 대책	- 명문 학군 인근 아파트의 구매를 억제하기 위해 학군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교사 순환 근무제도 도입 등
연예계에 대한 규제 강화	- 연예인의 이중계약, 탈세 등 행위에 대해 엄격 규제 - 비이성적으로 스타의 사생활을 쫓는 문화를 금지 - 여성스러운 외모를 한 남성 아이돌 퇴출, 립싱크 금지 등
'996 근무제'비판	- '996 근무제 등 직장 초과근무 강요'를 금지하고 '노동자의 휴식/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며 일주일에 6일 일하는 야근 문화

자료: GUOHAI SECURITIES

○ 향후 당국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전면적 발전'에 방점을 둔 정책 입안** 예상

- 특히 민생개선, 강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소득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 등에 주력하면서 **안정적·전면적 성장과 분배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전망

<'전면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예상) >

구분	정책방향
민생 개선	-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하고, 포용적 인적자본 투입을 확대 - 노후와 의료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재난구조를 재구축 - 주택공급·보장체계를 개선
강소기업 육성	- '전문화(專)', '정밀화'(精), 특징화(特), '혁신력(新)' 갖춘 강소기업 육성에 역점 - 혁신주도 성장,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으로 정책 방향 선회 -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억제
양극화 해소	- 소득분배구조 개혁 가속화 - 농촌,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자료: GUOTAI JUNAN SECURITIES

□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해 경제안보 강화에 속력

○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국방에 편중한 안보가 아닌 경제, 소비, 자원, 생태환경 등 전면적인 안보관을 제시**

- 逆세계화와 급격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속에서 중국은 **안전한 경제발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
- 코로나 사태 장기 충격으로 국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逆세계화 추세 속 **미중 디커플링 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경제안보 분야와 산업>

구분	분야	산업
국방	사이버	통신, 정보
	국토	항공우주, 선박, 공공서비스, 기계제조
	군사	군용 신소재, 군용 전자산업, 군사장비
	정치	-
경제 소비	문화	콘텐츠, 사회서비스
	사회	감시 카메라
	과학기술	반도체, 통신, 첨단설비, 산업용 소프트웨어, 의약바이오
	경제	에너지, 통신, 금융, 교통운송, 부동산
자원 생태환경	핵	채굴업, 기계제조, 전력설비, 환경보호
	생태환경	환경보호, 기계제조
	바이오	농업기술, 바이오제약, 의료서비스
	자원	농림수산, 식품, 화석에너지, 전력설비, 광물

자료: GF SECURITIES

○ **'식량·에너지안보', '안전한 자립형 공급망 구축', '기술 독립'** 등 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분야의 안보를 중점적으로 강화할 전망**

- '식량안보'는 중국 최고지도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당국은 곡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수확에 속도를 내면서 세계 식량난 위기 대응
- 계속되는 지정학적 분쟁과 제한된 지출로 인해 에너지 공급 압박은 단기적으로 완화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의 친환경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원유·천연가스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우군 확보와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한 대외협력을 강화할 전망

<중국 경제·산업 정책 안보 강화 전망>

분야	정책 전망
식량	- 경작지 18억 무(畝) 마지노선·식량자급률 95% 이상 확보 - 곡물 공급·가격 안정화 대책 강화 - 곡물, 특히 대외의존도 높은 사료용 곡물 재배면적 확대 - 종자업 육성 및 농업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
에너지	- 에너지 소비구조 개선 및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 공급선 다원화를 통해 국제에너지 위기 대응
공급망	-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제도적 장치 마련 - 핵심 원자재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자국내 생산량을 확대하며 산업고도화에 박차 - 경제우군을 확보하고 자국 중심의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
기술	- 기술혁신, 핵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자료: GUOTAI JUNAN SECURITIES

○ 對中 압박 전면화·진영화 추세 날로 뚜렷해지면서 **중국기업과 정부는 기술 자립,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적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기술패권 경쟁이 안보와 주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 중국은 독자적 기술개발,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 자립,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중 압박에 대비하고 있음
- 향후 '내수 위주의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에 따라 기술혁신에서의 정부 역할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
- 특히 과학기술 안보와 일부 핵심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이 여전히 서방 선진국의 제제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 특히 **'차보쯔(卡脖子·목을 조르는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육성·지원 강도를 높일 전망**

< 미국의 對中 기술적 디커플링 조치 >

시기	조치	관련 분야
2018.3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
2018.4월	ZTE 제재	통신
2019.5월	화웨이 제재	반도체, 통신
2020.8월	틱톡, 위챗, 바이트댄스 제재	인터넷
2020.12월	외국기업책임법(HFCAA) 통과	-

2021.2월	바이든 정부	
2021.3월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자 안보협의체) 출범	5G, AI, 반도체
2021.6월	미-EU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TTC) 출범	-
2021.6월	'공급망 100일 검토보고서' 발표	반도체, 신에너지, 의약바이오
2022.2월	인도·태평양 전략 제정	-
2022.7월	미 국회,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	반도체
2022.9월	SMIC(中芯國際) 제재	반도체
2022.10월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	반도체

자료: GF SECURITIES

□ 에너지 공급 보장을 전제로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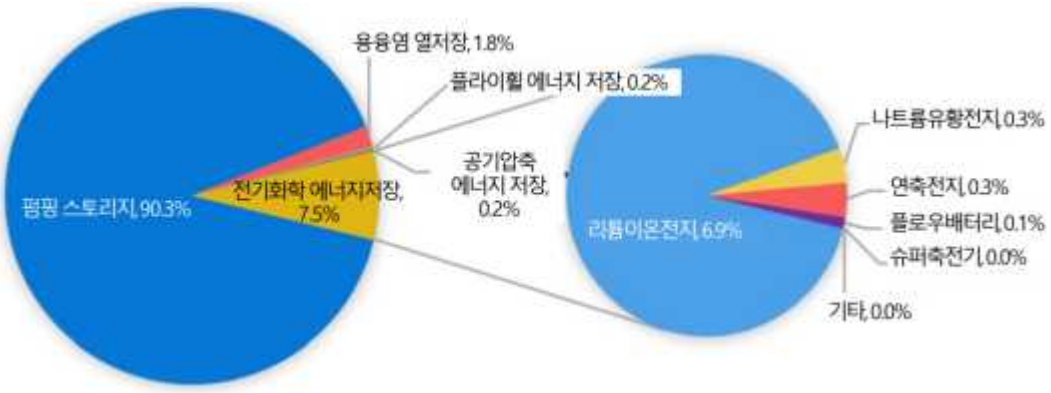
○ 중국의 탄소중립 시간표(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정점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에 따라 **집권 3기(2023~2027년)은 에너지소비 구조 개선과 녹색성장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 필요**

-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는 산업구조 조정과 에너지 효율 관리, 청정화 및 전기화를 통한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의 포집, 흡수를 통한 탄소 제거, 탄소 배출 마이너스 달성 등을 포함

○ 전통 에너지 공급 보장을 전제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에너지소비 구조 개선 가속화 예상**

- 중국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탄소중립화 추진과 관리에 무게를 두고 관련 산업 발전 촉진
- 탄소저감 기술 R&D 및 응용, 녹색 제조와 서비스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철강, 유색금속, 석유화학, 화공, 건축자재 등 업종의 에너지 소비량·탄소배출량 저감에 주력
- 친환경차 비중을 대폭 늘리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설치 규모 지속 확대 등 노력이 예상됨

< 전세계 에너지 저장 장치의 설치 규모 및 분포 >



주: 2022년 발표된 '14차 5개년 계획: 신형 에너지 저장 발전 시행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신형 에너지 저장 상업화의 규모화 발전 단계 진입, 대규모 상업화의 응용 여건 마련, 2030년까지 신형 에너지 저장의 전면적 시장화 발전 실현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GUOTAI JUNAN SECURITIES

□ 중국 중심의 산업망 강화와 新통상질서 구축에 목적을 둔 新 대외개방 지속 추진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을 통한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 무역강국 건설 가속화, "일대일로" 견지 등 **다원적이고 안정적인 국제 경제구도 구축에 전력**

- 향후 양자·다자간 FTA 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가치사슬에서의 중국 역할을 강화하고 중국 중심의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을 구축에 전력 예상

* (과거) 일반 부품·소재 수입·가공(韓,臺) ⇒ 중국내 생산 ⇒ 저부가가치 최종소비재 수출(美,歐)
(미래) 중요 부품·소재 수입·가공(韓,臺) ⇒ 중국내 생산 ⇒ 일반 부품소재·고부가가치 최종소비재 수출

-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우군을 확보해 미 중심의 전면적·진영화 對中 전면 압박을 대응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팬데믹, 미-중 통상분쟁 전면화·장기화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30년간 세계 무역을 주도해온 글로벌가치사슬이 빠르게 지역화, 블록화되고 있음

- 기술적 우위를 가진 미국이 중국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기술패권 경쟁이 안보와 주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 향후 5년간 중국은 핵심 원자재, 기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공급선 다변화, 산업고도화를 적극 추진 예상

※ [사례] 中 철강업계, 철광석 자급률 향상을 위해 '기석(基石)계획' 가동

- **'기석계획'은 글로벌 공급사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철광석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년~15년 내 중국 철광석 공급구조를 개혁하는 철강업 자립화 전략임**
- **2022년 1월 중국철강공업협회가 발개위,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보호부 등 관련 부처에 '계획'을 보고, 신청했으며 최근 추진 허가를 받은 상황**
- **중국내 철광석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해외 공급선 다변화*에 주력할 방침**

*** 호주·브라질 이외의 자원 확보, 예컨대 2022.5월 중국철강그룹 카메룬 정부와 철광석 광산 개발 MOU 체결 등**

- **현지 전문가들은 지난해 당국의 조강 감산 조치도 철광석 가격 급등세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며 철강 산업 고도화 전략도 동시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

- 또한 세계의 對中의존도 높은 품목(예: 희토류, 마그네슘 등)에 대해서는 산업 집중도를 높여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전력할 것으로 전망

Ⅳ. 시사점 및 대응전략

□ 시진핑 집권3기에도 경제정책은'부유(경제발전)'에 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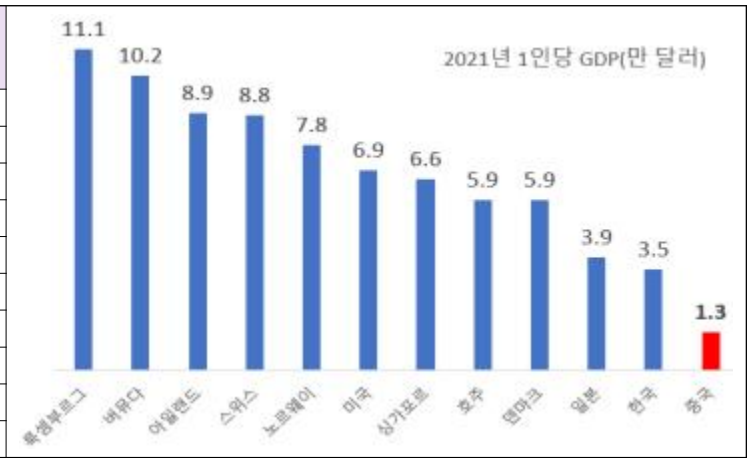
○ 뉴노멀 시대에 코로나 악재가 겹치며 중국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최고지도부의 첫 번째 과제는 '안정적 성장'**

- 2021년 중국의 1인당 GDP 1만 2,556달러로 세계 61위에 위치했는데 이는 선진국(2만 달러)의 약 60%이며 미국의 1/5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 시진핑 주석이 장기목표로 설정한 '중국몽', '공동부유' 실현 등은 모두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전제로 함

*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제창하며 이를 중국의 장기목표로 설정

<2021년 주요국 GDP 및 1인당 GDP>

국가	2021년 GDP (억 달러)	세계 GDP 비중 (%)
미국	20.3	23.5
중국	15.8	18.2
일본	4.4	5.1
독일	3.5	4.1
영국	3.1	3.6
인도	2.7	3.2
프랑스	2.6	3.0
이탈리아	1.9	2.1
캐나다	1.7	1.9
한국	1.7	1.9



자료: World Bank

○ 중국은 향후 안정적 성장을 위해 20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정책 노선에 따라 수요·공급측 개혁, 산업고도화, 신형도시화, 자립형 공급망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의 산업정책 방향에 따라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인프라 투자와 디지털 전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신SOC 투자, 지역·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군 전략과 농촌활성화가 지속되고 다양한 소비진작책이 제정, 시행될 전망
- 첨단 제조업에 대한 외자투자 유치를 위해 개방 확대 정책 지속 시행 예상

□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대비하며 전략적으로 중국 시장 접근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 임박, 對中 견제 전면화에 따라 중국은 산업고도화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

- 중국의 신성장모델인 '내수위주의 쌍순환'의 핵심은 내수확대와 자립형 공급망 구축임
- 제조업 투자 확대, 선도기업 육성 강화 등을 통해 산업고도화와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전력 예상

※ 중국은 제조강국 도약 전략인 '중국제조 2025'을 포기했나?

- **중국제조 2025는 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으로 30년 3단계에 걸쳐 '제조강국'의 꿈을 이룰 것을 제시**
  * 1단계(~'25) 제조강국 반열 진입 → 2단계(~'35) 제조강국 진영의 중간 수준 → 3단계(~'49) 신중국 건국 100주년 시기로 제조강국 실현
- **2015년 공식 제기 이후 서방국가의 대중 견제가 심해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관련 언론들도 언급을 자제하며 정책, 언론에서 모습을 감췄음**
- **그러나 '중국제조 2025'의 구체적 내용, 즉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상황**
  * 2022.11월 공업정보화부는 국가급 그래핀 혁신센터, 가상현실 혁신센터, 초고화질 동영상 혁신 센터 등 3개 국가급 제조 혁신센터 구축을 승인
-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의 견제, 지방정부의 중복 투자 등 문제를 의식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임**

<10대 중점산업과 5대 중점 프로젝트 추진>

5대 중점 프로젝트	10대 중점산업
① 국가 제조 혁신센터 구축 ② 스마트 제조 ③ 공업 기반 역량 강화 ④ 녹색 제조 ⑤ 최첨단 장비 혁신	① 차세대 정보기술 ②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③ 전력설비 ④ 선진 궤도교통설비 ⑤ 항공우주장비 ⑥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⑦ 신소재 ⑧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⑨ 농업기계장비 ⑩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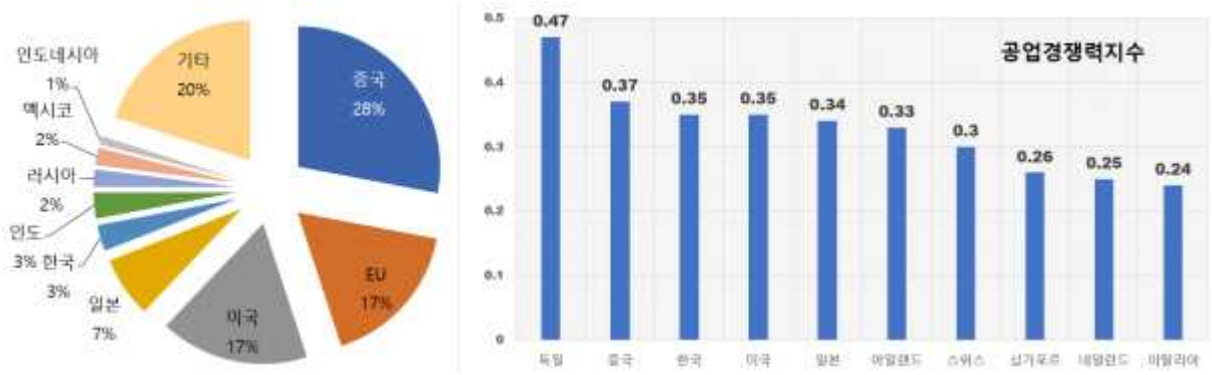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무원

○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대비해 **차별화된 제품 개발, 기술수준 향상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할 필요**

* 중국 제조업 증가치(부가가치)의 세계 비중은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공업경쟁력지수도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최근 자국화 수준 제고, 자국 브랜드 육성 등 중국 산업 내의 구조고도화도 가속화되는 양상

- 로컬제품 품질 강화 등에 따라 시장경쟁 격화가 예상됨
- 내수중심의 자생적 경제구조 구축에 따른 로컬기업 급부상도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시장 이해도가 높은 기업, 대형 상업기업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함

<산업생산의 세계 비중(2019년), 공업경쟁력지수 상위 10개국>



자료: World Bank, UN산업개발기구

□ **자국 우선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대비해 공급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 대외환경 악화, 중국 경기둔화 등 국내외 다중악재로 **중국은 수출 검역관리방식 변경, 수출세 인상 등 정책·조치를 동원해 자국 내 안정적 공급을 확보**

- 중국은 국내외 가격 격차로 수출물량이 늘어나면서 중국 내 공급부족, 중소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

○ 중국은 또 세계의 對中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 집중도를 높여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결정권을 강화하고 있음

- 희토류와 같은 '전략적 자원'은 물론, 마그네슘 등 전 세계 공급량에서 중국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산업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경제 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전략적 광물자원과 같은 품목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바 중국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중국의 전략적 광물자원 목록>

유형	산업
에너지	석유, 천연가스, 셰일가스, 석탄, 석탄층 메탄가스, 우라늄
금속광물	철, 크롬, 구리, 알루미늄, 금, 니켈, 텅스텐, 주석, 몰리브덴, 안티몬, 코발트, 리튬, 희토류, 지르코늄
비금속광물	인, 칼륨염, 결정질 흑연, 형석

자료: <전국광물자원계획(2016~2020)>, 국토자원부·발개위·공신부·재정부·환경보호부·상무부 공동 발표

□ 포스트 코로나 경기회복 과정의 '국진민퇴(國進民退)' 경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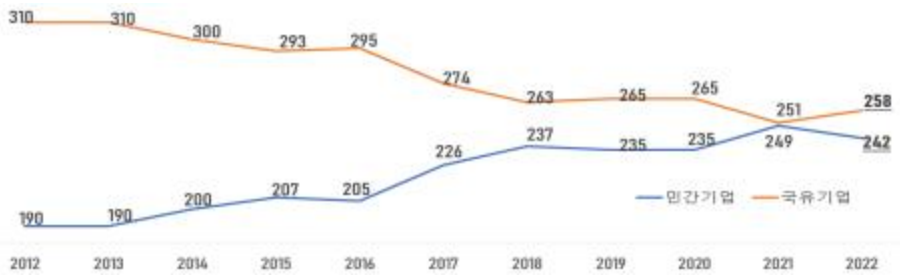
○ 중국 경기회복 과정에서 국가기간산업, 핵심 주력 산업에 대한 국유자본의 통제 강화 가능성

- 중국 정부는 중국경제에 대한 국유기업 주요 역할 유지 및 당의 경제에 대한 통제를 전제로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중이며, 국유기업의 효율성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자본 투자 적극 유치(=혼합소유제 개혁)
- 또한 국가안전, 국민경제와 깊은 연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국유자본의 '지배적 지분통제'를 유지
- '시코노믹스'의 핵심은 경제발전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 만큼 시진핑 집권 10년간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반해 민영기업은 지속 감소세

  * 최근 코로나 충격이 서비스업, 소비, 유통, 경공업 등 민영기업의 강세분야에 집중되면서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 수가 민영기업 수를 역전함

- 집권 3기에도 첨단 산업의 육성과 핵심 기술 개발에 막대한 보조금 투입과 시장보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과 발전,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큼**

<중국 500대 기업 소유제별 분포>



자료: '중국500대기업발전보고서'

[첨부1] 시진핑 집권3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서열 1위 당 총서기 · 국가주석 · 군사위 주석

시진핑
(習近平)

1953년생(한족)
출생지: 산시(陝西)

◈ 직책: 중국공산당 중앙위 총서기·군사위 주석('12.11월 선출), 국가주석('13.3월 임명)
◈ 학력 : 칭화대학 화학 학사 → 마르스크주의 정치 석사 → 법학 박사
◈ 주요경력:
- 2012~ : 중국 당·정·군 최고 지도자
- 2007~ 2012 : 당 중앙위 (최종 직책 : 중앙군사위 부주석)
- 2007~ 2007 : 상하이시 근무 (최종 직책 : 상하이 당서기)
- 2002~ 2007 : 저장성 근무 (최종 직책 : 저장성 당서기)
- 1985~ 2002 : 푸젠성 근무 (최종 직책 : 푸젠성 당서기)
- 1982~ 1985 : 허베이성 정딩(正定)현 근무 (최종 직책 : 당서기)
- 1979~ 1982 : 당 중앙 군사委 (최종 직책 : 판공청 비서)

◈ 특이사항
- 전인대 부위원장을 지낸 시중쉰(習仲勛, 저우언라이 총리 최측근)의 장남으로 훙얼다이(紅二代: 혁명원로의 2세대)임
- 9세때 아버지 숙청당한 후 13세때 산시성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로 하방(下放), 7년간 농촌생활
- '85년부터 18년간 푸젠성 재직시절 대만 자본 유치를 통해 푸젠성 경제발전에 기여
- '94년 위안화 밀수사건 당시 푸젠성 고위층 출신으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
- '02년 저장성 대리성장 부임 한달여 후에 당 서기로 이례적 고속 승진
- 부패혐의로 기소된 천량위(陳良宇) 서기 후임으로 '07년 상하이시 당서기로 임명, 천량위 사태 수습하며 지도자로 부상
- 개혁주의자로 관료 부패에 대해 엄격, 지난 10년간 반부패 척결로 권력 강화
- 국무원 총리가 중국내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관례를 깨고 경제정책 운용을 주도
- 강력한 성향을 지닌 권위주의 지도자로, 20차 당대회를 거쳐 마오쩌둥 이후 첫 권력집중을 실현

◈ 측근 세력(시자쥔, 習家軍)
- 태자당: 훙얼다이와 동창, 대표 인물은 왕치산 부주석, 류허 부총리
- 푸젠계: 저장성 근무시 부하, 대표 인물은 허리펑 발개위 주임, 왕샤오훙 공안부장 등
- 저장계: 저장성 근무시 부하, 대표 인물은 리창 총리 내정자, 차이치 중앙서기처 서기, 천민얼 충칭 당서기 등
- 서북파: 아버지의 출생지이자 하향지인 중국 서북지역의 인맥, 대표 인물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시 중앙기율위 서기 등
- 상하이계: 상하이 근무시 부하와 인맥, 대표 인물은 왕후닝 전국 정협주석 내정자, 딩쉐상 국무원 부총리 내정자 등

◈ 한국과의 관계
- 국가주석 취임 前: 3차례 방한을 통해 한국측 인사와 교류
  : '09.12월 방한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 면담
- 국가주석 취임 後: 박근혜 정부 시 한차례 방한 ('14.7월)

서열 2위 국무원 총리(내년 3월 임기 시작)

리창
(李强)

1959년생(한족)
출생지: 저장

◈ 시진핑 집권1·2기 직책: 저장성 성장, 장쑤성 당서기, 상하이 당서기
◈ 학력 : 저장농업대학 닝보(寧波)분교 농기계학 학사, 중앙당교 석사(연수), 홍콩이공대 EMBA 석사
◈ 주요경력:
- 2017~ : 상하이 근무 (최종 직책 : 상하이시 당서기), 19기 중앙정치국 위원
- 2016~ 2017 : 장쑤성 근무 (최종 직책 : 장쑤성 당서기)
- 1976~ 2016 : 저장성 근무 (최종 직책 : 저장성 성장)
◈ 특이사항(시자쥔 중의 저장인맥)
- 중국 개혁개방 이후 첫 부총리 경험이 없는 총리
- 2022년 봄 경제수도인 상하이시의 코로나19 방역 실패 및 도시봉쇄에 따른 공급·물류대란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적 시각 존재
◈ 한국과의 관계
- 저장성 성장 당시 이낙연 전라도지사와 면담('15.4월)
- 상하이 뷰티 산업단지인 둥방메이구(東方美谷) 건설 추진, 2018년 국제화장품대전 당시 한·미·일 등 외국 기업가 대표단 회견 ('18.11월)

서열 3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내년 3월 임기 시작)

자오러지
(赵乐际)

1957년생 (한족)
출생지: 산시(陝西)

◈ 시진핑 집권1·2기 직책: 중공중앙 조직부장, 서열 6위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중앙기율검사위 서기
◈ 학력 : 베이징대학 철학 학사
◈ 주요경력 :
- 2017~ : 서열 6위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 2012~ 2017 : 중앙정치국 위원 및 중앙조직부 부장
- 2007~ 2012 : 산시(陝西)성 근무 (최종 직책 : 산시성 당서기)
- 1974~ 2007 : 칭하이성 근무 (최종 직책 : 칭하이성 당서기)
◈ 특이사항(시자쥔 중의 서부인맥, 반부패 인사)
- 왕치산의 후임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반부패 척결을 주도해 온 '반부패 차르'
- 산시성(陝西, 시진핑 주석 부친의 고향) 출신의 시진핑 심복
- 37세의 나이에 칭하이성 성장직 수행
◈ 한국과의 관계
- 한국주시안총영사관 개관식 참석, 김하중 전 주중대사와 면담('07.9월)
- 삼성 시안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김중종 삼성전자 사장과 면담('12.3월), 산시성-삼성전자 전략적 협력체결식에서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면담('12.4월), 삼성 시안반도체 생산단지 건설 기공식 참석('12.9월),

서열 4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내년 3월 임기 시작)

왕후닝 (王沪宁) 1950년생(한족) 출생지: 상하이	◈ 시진핑 집권1·2기 직책: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일대일로' 건설공작소조 부조장,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구성원, 서열 5위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중앙서기처 서기 ◈ 학력 : 푸단대학 국제정치학 학사→석사 ◈ 주요경력: - 2017~ : 서열 5위의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중앙서기처 서기 - 1995~ 2017 : 중앙정책연구실 근무 (최종 직책 :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 1977~ 1989 : 푸단대학 근무 (최종 직책 : 법학원 원장) * 푸단대 근무기간 미·중 정치체제, 반부패 등 연구로 두각 나타내기 시작 ◈ 특이사항(상하이출신, 학자형 관료, 시자쥔, 3대 최고지도자의 이론 책사) -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의 꿈', '신형대국관계', '강국' 이념 등은 모두 왕후닝의 작품 - 중국 정계 핵심 브레인, 시진핑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수석책사 - 장쩌민(3개 대표론)·후진타오(과학발전론)·시진핑 사상 3대 최고지도자의 정치이론 수립에 기여한 '3대 제왕의 스승'(三代帝師) - 일각에서는 서방국가의 對中 경계와 전면적 압박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비판 ◈ 한국과의 관계 - 최고지도자 한반도 방문 시 수행인사: 장쩌민 북한 방문 동행('01.9월), 후진타오 방한시 청와대 정상회담 동행('08.8월), 시진핑 주석 수행인사로 방한('14.7월),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시 동행('17.7월)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제1)서기

차이치 (蔡奇) 1955년생 (한족) 출생지: 푸젠성	◈ 시진핑 집권1·2기 직책: 중앙국가안전위 판공실 부주임, 베이징시 시장·당서기 ◈ 학력 : 푸젠사범대학 학사 → 석사 → 박사 ◈ 주요경력 : - 2016~ : 베이징시 근무 (최종 직책: 베이징시 당서기), 19기 중앙정치국 위원('17년부) - 2014~ 2016 : 중앙국가안전위 판공실 (최종 직책 : 판공실 부주임) - 1999~ 2014 : 저장성 근무 (최종 직책 : 저장성 부성장) - 1978~ 1999 : 푸젠성 근무 (최종 직책 : 산밍(三明)시 시장) ◈ 특이사항(푸젠성 출신이지만 시자쥔 중의 저장인맥으로 분류) - 중공 사상 처음으로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초고속 승진한 인물 - 베이징시 근무기간 베이징 상주인구 수 통제, 건축·소방안전 단속 등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非인권적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외래 인구를 쫓아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한국과의 관계 - 항저우시 시장 당시 김용서 수원시장와 면담('08.6월)

서열 6위 국무원 부총리(내년 3월 임기 시작)

딩쉐샹 (丁薛祥) 1962년생 (한족) 출생지: 장쑤성	◈ 시진핑 집권1·2기 직책: 중앙위원회 총서기 판공실 주임, 중앙위원회 판공실 주임 ◈ 학력 : 동북중형기계학원 학사, 푸단대학 행정관리학 석사(연수) ◈ 주요경력 : - 2017~ : 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최종 직책 : 판공실 주임) - 1982~ 2013 : 상하이 근무 (최종 직책 : 상하이시 정법위 서기) ◈ 특이사항(시자쥔 중의 상하이 인맥) - 중공 최고지도부의 첫 60허우(60後1=960년대 태어난 세대) - 시진핑의 상하이 당서기 근무시설부터 보좌해 온 '비서실장' ◈ 한국과의 관계 -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시 동행('18.11월) - 문재인-시진핑 한중정상회담시 동행('19.6월)

서열 7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리시 (李希) 1956년생 (한족) 출생지: 간쑤성	◈ 시진핑 집권1·2기 직책: 랴오닝성 성장·당서기, 광둥성 당서기 ◈ 학력 : 서북사범대학 중문과 학사, 칭화대학 EMBA 석사 ◈ 주요경력 : - 2017~ : 광둥성 근무 (최종 직책: 광둥성 당서기), 19기 중앙정치국 위원 - 2014~ 2017 : 랴이닝성 근무 (최종 직책: 랴오닝성 당서기) - 2011~ 2014 : 상하이시 근무 (최종 직책 : 상하이시 부서기) - 1975~ 2011 : 간쑤성, 산시(陝西)성 근무 (최종 직책 : 옌안시 당서기) ◈ 특이사항(시자쥔 중의 서북인맥) - 옌안시 당서기 재임시 시진핑 하향지(옌안시 량자허촌(梁家河村) 촌민을 조직해 차기 최고지도자로 지명된 시진핑 상하이 당서기에게 편지를 보낸 인연으로 산시성에서 상하이로 전근 - '14년 랴오닝성 성장으로 부임한 3개월 내 14개 지급(地級)시를 모두 시찰할 정도로 현장정치에 열정적, 12개 TF팀을 구성해 동북진흥전략 추진하는 강경한 개혁파 - '15년 랴오닝성 당서기로 승진 시 중국 31개 성·시 중 유일한 중앙후보위원임 * 일반적으로 중국 31개 성·시 당서기는 중앙위원임 ◈ 한국과의 관계 - 광둥성 당서기 당시 노영민 주중대사와 면담('18.2월) - 랴오닝성 당서기 당시 황교안 총리와 면담('16.6월) - 랴오닝성 당서기 당시 산업자원통상부 주형환 장관과 면담('16.5월) - 랴오닝성 성장 당시 신봉섭 주중 선양총영사와 면담('15.1월)

주: 직위가 명시된 차이치(중앙서기처 서기)와 리시(중앙기율위 서기)를 제외한 4명의 직위는 관례에 따라 예측한 것이며 내년 양회에서 최종 확정됨.

[첨부2] 시진핑 집권3기(=중국공산당 20기) 중앙정치국 위원(상무위원 제외한 17명)

성명	현 직책	이력 특징
허리펑 (何立峰)	국가발개위 주임	- 샤먼대 경제학 박사 - 1990년대부터 시진핑 주석과 친분을 쌓아오며 두터운 신임 - 일대일로 전략의 키맨,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총괄부처의 수장으로서 경제개혁과 '14.5계획'제정을 주도
스타이펑 (石泰峰)	중앙통일전선 공작부 부장	- 베이징대 법대 출신의 법학 전문가로 리커창 총리와 본과 동창 - 장쑤성 성장, 닝샤 당서기, 네이멍구 당서기 등 지방수장으로서의 근무경험 풍부
리수레이 (李書磊)	중앙선전부 부장	- '베이징대 신동'으로 불리는 베이징대 문학 박사 - 중앙당교 교수, 푸젠성 선전부장, 중앙기율위 부서기를 역임
왕이 (王毅)	외교부장	- 중국 주일본 대사, 외교부장을 역임한 외교통 - '전랑(戰狼·늑대전사, 공격적인 외교를 뜻함) 외교'를 대표하는 강경파 - 양제츠 뒤를 이어 차기 중국 외교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
천원칭 (陳文清)	중앙정법위 서기	- 1960년 출생한 60허우 - 정치·법률 부문 전문 관료
장유샤 (张又侠)	중앙군사위 부주석	-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보장부장을 지낸 장중쉰(張宗遜) 상장의 차남인 훙얼다이(紅二代) - 육군 상장
허웨이둥 (何衛東)		- 육군 상장
인리 (尹力)	베이징시 당서기	- 하버드대 의대 박사 출신으로 보건부처를 두루 거쳤음 - 코로나 기간 ('20.12월) 지방수장(푸젠성 당서기)로 임명
천지닝 (陳吉寧)	상하이시 당서기	- 명문대 칭화대를 거쳐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박사 학위 취득한 교수 출신 - 환경부장 재직 당시 '스모그와의 전쟁'을 진두지휘 -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차이치의 뒤를 이어 베이징시 당서기로 승진할 전망
천민얼 (陳敏尔)	톈진시 당서기	- 현, 시, 성급 간부과정을 착실히 밟아온, 홍보 경험 풍부한 홍보통 - 시진핑 주석의 저장성 근무기간 줄곧 홍보업무를 담당, 시진핑 주석의 저장일보 칼럼을 관리한 '어용 홍보관' - 구이저우의 빅데이터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주도한 인물
위안자쥔 (袁家軍)	충칭시 당서기	- 베이징 항공대 박사,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 항공우수공업총공사, 중국과학협회를 거쳐 닝샤 부서기, 저장성 부서기, 성장, 당서기 역임
황쿤밍 (黃坤明)	광둥성 당서기	- 푸젠-저장을 거쳐 중앙으로 진출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시자쥔
마싱루이 (馬興瑞)	신장 당서기	- 국유방산기업(항공우주 분야)·달탐사 지휘관 출신의 기술관료 - 선전시 당서기, 광둥성 성장, 신장 당서기 역임
류궈중 (劉國中)	- (내년 확정)	- 동북(헤이룽장, 지린), 서남(쓰촨), 서북(산시) 등 지방수장을 두루 거침
리간제 (李干杰)	산둥성 당서기	- 칭화대학 핵물리학 석사 출신 - 환경부장 재직 시 '환경폭풍'으로 불리는 환경감찰 주도 - '21.9월 산둥성 당서기로 임명될 당시 최연소 당서기로 주목
장궈칭 (張國清)	- (내년 확정)	- 국유방산기업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술관료 출신 - '11년 중국병기공업그룹 총경리 재임시 해당 그룹을 중국내 매출 3천억 위안 돌파한 첫 방산기업으로 발전시키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 - '13년 충칭시 부서기로 발탁, 충칭시 시장, 랴오닝성 당서기를 역임
리훙중 (李鴻忠)	- (내년 확정)	- 비서출신 관료 - 전자공업부-광둥성-후베이성을 거쳐 톈진시 당서기로 발탁 - '16.1월 '시진핑 핵심론'을 제창한 것으로 유명함

Reference (주요 참고자료)

[국문자료]

KOTRA. 2020.『코로나19 이후 대중 수출 변화와 시사점: 제품 용도별·품목별 수출 실적 분석』. KOTRA

KOTRA. 2022.『최근 중국 공급망 이슈의 영향 및 전망』. KOTRA

KITA. 2021.『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KITA

KITA. 2022.『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 KITA

[중문자료]

财通证券. 2022.「国产“大安全”自强之路」. 财通证券

中信建投证券. 2022.「出口结构视角下的中国制造业升级」. 中信建投证券

申万宏源研究. 2022.「区域经济相对优势的变迁」. 申万宏源研究

海通证券. 2022.「中国式现代化的机遇」. 海通证券

广发证券. 2022.「“国家安全”系列报告」. 广发证券

작 성 자

- 베이징 무역관 문은혜
  김성애
- 아시아중아팀 윤기섭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2-042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 이 지	www.kotra.or.kr
문 의 처	베이징무역관(86-10-6410-6162)

• ISBN: 979-11-402-0576-9(95320)

청렴세상

윤리경영·청렴 레터

KOTRA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귀하(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TRA는 윤리경영·청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와 자존심을 소중히 여기며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에 앞장선다.

둘째, 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향응을 거부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과 청탁도 배격한다.

셋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항상 사람을 최우선하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안전의식을 가지고 위험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다시 한 번 깨끗하고 공정하고 일 잘하는
KOTRA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클린신고센터(부패신고채널)
전화: 02-3460-7010 Email: clean@kotra.or.kr Fax: 02-3460-7902
우편: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감사실 행동강령책임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